

‘한국예수교회연대’ 창립취지문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눅 5:37-38)”

작금의 한국 교회는 세계와 사회개혁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개혁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교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저항세력과의 지루한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 사이 교회가 담당해야 할 본질적인 선교의 사명과 책임은 간과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하루 노동자, 실직자들의 고통도 잊혀졌습니다. 근본주의 신학과 문자주의 성서해석에 머물러 있는 교회 성장주의자들은 배타적이며 선택적 사랑을 교회의 사랑으로 왜곡하고, 나아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권을 가진 자들은 신학자들의 신학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고, 목회자와 목사 후보생들의 사상을 검열, 통제하는 등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젠더 불균형, 위계에 의한 서열화를 교회문화로 정착시켰고, 급기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민주적 집단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교리로 대치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적 기능으로만 축소하여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예수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수교회연대’로 모인 우리는 이런 교회를 결코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그 몸체에 담아 실천하는 곳이어야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했던 공동체, 우리가 바라고 고백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닌 ‘예수교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뜻을 복원하려는 ‘예수인’과 ‘예수교회’가 분명해질수록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현시대는 인류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과 행태에 혁명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체제가 가차 없이 내뿜던 생명, 생태, 평등, 평화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자각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돈과 불안의 일상 속에서 자본주의의 무한 욕망을 잠재우고,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의 존엄성을 지켜낼 변혁적 순례를 우리 역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변화와 전환의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교회됨’에 대하여 치열한 고민과 그 실천을 해 가고자 합니다. 혼돈과 희망이 혼재된 세상에서 더 상처받기 쉽고, 손상되기 쉬운 존재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1. 변혁적 순례 영성을 지향하는 교회
2.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
3. 사회에서 고난받는 사람과 연대하는 가난한 교회
4. 자본주의적 욕망과 개발-성장에 저항하는 교회
5. 개방성과 포괄성을 기초로 이웃 종교와 대화하는 교회
6. 민주적 조직구조와 평화적 의사결정을 따르는 교회

7. 가부장적 권위문화를 타파하고 평등한 관계문화를 기초로 삼는 교회
8.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
9. 동아시아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교회
10. 기후위기에 응답하는 교회(녹색교회)

교회의 앞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여기 모인 우리는 ‘한국예수교회연대’라는 새로운 교회의 그 변혁적 순례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 열매를 기대하며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작은 ‘나비 날갯짓’ 같은 몸짓이지만, 이 순례길에 함께 할 분들과 교회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가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갑시다.

2021년 11월 2일

‘한국예수교회연대’ 창립을 준비하는 예수인 45인 일동